

HUFS



13th President of Hufs Kang, Kee-Hoon Inauguration Ceremony

Cover Story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3대
강기훈 총장 취임식

Special Theme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Hufs

Inside Hufs

국가가 인정한 Hufs의
연구산학협력 역량

Hufs Topic

한국외대-네이버클라우드, AI 인재 양성·
스마트캠퍼스 구축 협력

Come to HUFS Meet the AI World



외대형 첨단 융복합 교육으로
AI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성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HUFS

Global HUFS 2026 Spring Vol. 130

SPECIAL THEME

02	Cover story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3대 강기훈 총장 취임식
04	Special Theme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HUFS
06	Theme Interview	AI 캠퍼스에서 글로벌 싱크탱크까지 강기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3대 총장
12	HUFS Interview	외대를 향한 책임과 연대의 리더십 김덕술 제35대 총동문회장·일본어 81 끝나지 않는 질문, 언어철학의 길 이재원 독일어과 명예교수
18	Inside HUFS	국가가 인정한 외대의 연구산학협력 역량 전종근 연구산학협력단장 / 임승호 연구산학협력부단장
22	Global Memoirs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험, 삶의 방향을 비추다 박지원 국제금융학 22
24	I am HUFSan	봄과 함께 찾아온 2026년의 주역들 최인혁 Language & AI융합학부 / 추보민 자유전공학부 / 정석현 바이오메디컬공학부
26	Global Issues	"No Fears, Born to Be" K콘텐츠에서 K민주주의로 김민형 융합인재학부 교수

HUFS NEWS

30	HUFS Today
38	HUFS Academies
40	HUFS Professors
42	New Members
43	CUFS News
44	HUFS Institutes
46	HUFS Books

DONATION & ALUMNI

49	Donation News
52	Alumni News
54	Donation List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월 6일 오후 3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국제관 예경홀에서 강기훈 제13대 총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취임식은 김종철 동원육영회 이사장의 임명장 수여, 치사를 시작으로 총장 열쇠 및 교기 인수, 취임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날 강기훈 총장의 은사인 박병욱 서울대 석좌교수와 김덕술 총동문회장, 다이빙(Dai Bing) 주한중국대사가 축사를 통해 강기훈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외대의 도약을 기원했다. 강기훈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세계와 연결하고 미래를 여는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라며 “언어와 AI, 인문과 데이터가 결합하는 새로운 교육과 연구 모델을 통해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수의 연구와 교육이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학생이 세계를 무대로
꿈을 실현하는 대학

직원이 전문성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학

언어·AI·데이터
융합을 통한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 대학 구현

AI 기반 교육혁신과
AI 캠퍼스 구축을
통한 미래형
교육모델 정립

글로벌 싱크탱크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문화
지식플랫폼 도약

교육·연구·산업
선순환의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재정 다변화와
글로벌 교육사업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립

강기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3대 총장의 취임과 함께 우리 대학의 미래가 제시되었다.

강기훈 총장은 AI의 급격한 발전, 국제질서의 변화, 인구구조와 대학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에 요구되는 '변화'를 강조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 대학은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고,

AI와 데이터로 미래를 연결하는 대학으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AI 캠퍼스에서 글로벌 싱크탱크까지

2026년 3월 6일, 한국외대 13대 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영예로운 자리에 올라선 강기훈 신임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언급한 큰 핵심은 '변화'였다.

그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국외대를 세계와 연결하고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전하며 우리 대학의 새로운 도전을 선포했다.

강기훈 총장과 함께 만들어 갈 한국외대의 새로운 미래, 그 세부적인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전통에 혁신을 더해 세계와 연결되는 대학

제13대 한국외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부른 포부와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기훈 총장. 그의 취임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본다.

우리 대학은 70여년간 언어와 지역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화와 함께 성장해온 특별한 대학입니다. 이러한 역사 위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돼 매우 의미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장이란 자리는 영예로운 자리이면서 대학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의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대학 출신이 아닌 이공계 교수입니다. 그런 제가 학교 구성원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취임하게 됐다는 사실은 한국외대가 변화를 향해 열려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 뜻을 잘 받아들여 우리 대학의 전통과 강점에 혁신을 더하고, 세계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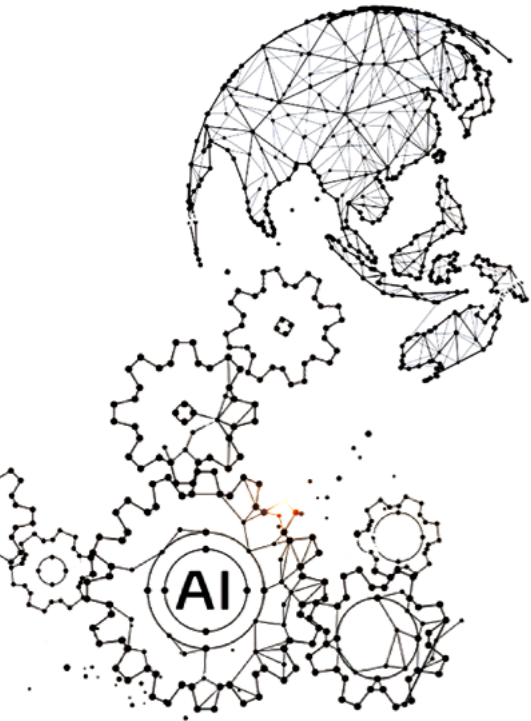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의 발전, 국제질서의 변화, 인구조의 변화라는 큰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강기훈 총장은 언어, AI, Data의 결합을 발전 모토로 내세웠다.

저는 우리 대학을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여는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Language, AI, Data의 결합입니다. AI 시대에 인문학과 언어의 가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고해집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 고유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이 전통 위에 AI와 데이터 기반의 융합 역량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려 합니다. 첫째는 AI 기반 교육 혁신과 스마트 캠퍼스 구축입니다. AI 및 데이터 융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문·사회·공학 전 분야에 AI 교육을 접목해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연구·산업이 연결되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입니다. 신성장 학문 분야를 육성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확대하여 대학의 연구가 산업과 사회에 실제로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책임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대학 운영의 주요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된 미래형 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Language·AI·Data가 결합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3대 총장
강기훈





“언어는 외대의 뿌리이고, AI는 외대의 미래입니다. 한국외대가 오랫동안 쌓아온 언어와 지역 연구의 전통 위에 AI와 데이터 역량을 더해, 세계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한국외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 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싱크탱크와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의 새로운 도전

70여년간 수많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온 우리 대학을 글로벌 싱크탱크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강기훈 총장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우리 대학은 오랜 기간 세계 지역 연구와 외교·통상·문화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정책과 문화 흐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글로벌외교안보통상전략연구원을 중심으로 국제정세 분석과 국가 전략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와 사회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연구 체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문화콘텐츠&트렌드연구원을 통해 세계 문화 트렌드와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연구하고 한국 문화와 글로벌 문화 산업을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한국외대가 교육기관의 기능과 더불어 세계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글로벌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은 필수항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역할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대학은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 LG CNS 등과의 협력을 통해 AI 스마트캠퍼스 구축과 실질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를 교육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언어와 지역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술 역량과 글로벌 소통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협력구조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의료·바이오, 문화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학문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외대의 산학협력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언어와 기술, 그리고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교육·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대학을 글로벌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혁신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대학 평가 향상을 우리 대학의 당면과제로 꼽았다.

최근 대학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대학은 여전히 국제화 지표에서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구 영향력과 일부 평판 지표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 분야에서 논문 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피인용도와 영향력을 중시하는 연구 지원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려 합니다. 국제 공동연구 확대와 우수 연구자 유치를 통해 연구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외국인 학생 유치를 강화하여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는 재정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대학이 발전하려면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확대와 산학협력 연구 강화를 통해 연구 재원을 늘리고, 글로벌 교육 사업과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유휴 부지 개발과 다양한 수익형 사업 발굴, 그리고 동문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발전기금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구조를 다변화하려 합니다.

언어는 외대의 뿌리, AI는 외대의 미래

취임사에서 “대학의 미래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에게 있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대학의 경쟁력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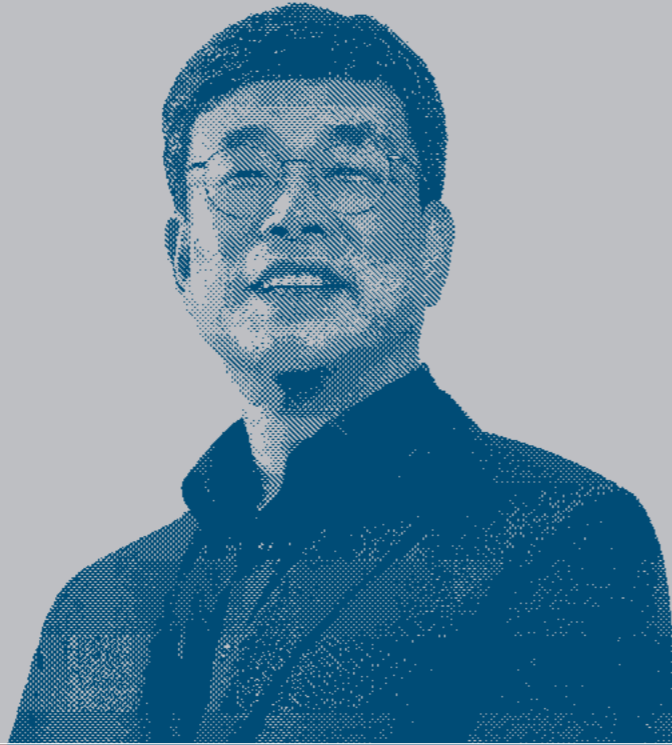
총장의 역할은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만, 그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총장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학의 발전은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단합된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이 살아있는 대학을 함께 만들어 주시고, 직원 선생님들은 대학 행정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외대인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은 우리 대학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이는 공동체로 성장할 겁니다. 저 역시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신뢰받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3대 총장으로서 포부를 물었다.

저는 ‘말하는 총장’이 아니라 ‘성교로 증명하는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대학의 비전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과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고민하고, 책임지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언어는 외대의 뿌리이고, AI는 외대의 미래입니다. 한국외대가 오랫동안 쌓아온 언어와 지역 연구의 전통 위에 AI와 데이터 역량을 더해, 세계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학, 교육과 연구, 산업이 연결되는 대학,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 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

U



HUFS INTERVIEW

외대를 향한 책임과 연대의 리더십
김덕술 제35대 총동문회장·일본어 81

끝나지 않는 질문, 언어철학의 길
이재원 독일어과 명예교수

F

S



제35대 총동문회장
김덕술 일본어 81



저는 재학생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실하게 자라 재학생 한 명 한 명이

우리 대학의 자부심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외대를 향한 책임과 연대의 리더십

2026년 2월 24일, 한국외대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35대 총동문회장으로

김덕술(일본어 81) 유니스토리 자선운용 회장이 취임했다.

그간 HUFS AWARDS 수상, HUFS 특강 후원 등 동문과 후배들을 향한 훈훈한 미담이 전해져오던 김덕술 회장.

그는 총동문회장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모교와 동문, 재학생을 잇는 소통의 가교로 활약해보고자 한다.

• 제35대 총동문회장으로 당선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국외대 총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이 헌신해 주셨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동문회장이라는 소중한 자리가 영광스러우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총동문회장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국외대 동문인 오랜 친구와 논의를 했죠. 친구는 기업인으로서의 면모나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제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왔기에 총동문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지해줬습니다. 친구의 조언이 회장직을 수락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친구 외에도 많은 동문과 학교 측에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셨기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헌신하는 총동문회장이 되겠습니다.

• 그동안 HUFS AWARDS 수상, 발전기금 기부, HUFS 특강 후원 등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장님에게 한국외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계 한국외대는 단순히 지식을 배운 곳을 넘어 인생의 근간이자 소중한 인연들이 맺어진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모교에서 받은 교육과 키워온 꿈이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더불어 제가 마음 놓고 사업과 대외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곁을 든든히 지켜준 아내도 우리 대학 일본어과 동문입니다. 은사이자 장인이신 박희태 글로벌 캠퍼스 전 부총장님도 평생을 한국외대와 함께한 분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외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학교와 학교에서 맺은 수많은 인연으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받은 큰 사랑과 혜택을 모교와 후배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실천일 뿐입니다.

• 특히 HUFS 특강은 회장님의 후배 사랑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CEO 중 일부는 30일 중 20일을 초찬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자주 참여하는데 좋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바쁜 CEO들이 모이는 강의다 보니 주최 측에서도 시간 낭비가 되는 강의는 진행하지 않죠.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후배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외대 후배들이 미리 CEO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라셨죠. 명사들의 강의를 통해 CEO들이 어떤 분야를 궁극적으로, 무엇을 배우려 하는지 미리 알면 학생들의 꿈의 비중과 시각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로 생활자가 되든 직접 CEO가 되든 분명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또 우리 대학은 사이버대학도 운영하고 있으니 영상으로 제작해 우리만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향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HUFS 특강'을 개설하고 특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정기부금 형태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HUFS 특강은 외교, 국제통상, 인문학 등 우리 대학의 강점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 사회 이슈를 융합해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총동문회장 임기 동안 우선순위로 추진할 활동 중 투명한 재원 관리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활동 중 첫 번째로 재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동문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동문들을 직접 만나보면 한국외대 출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엔 크게 후원하는 분들도 있고, 적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관심을 표현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후원한 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총동문회에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려면 보다 투명하게 재원을 운영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저는 사회공헌 활동과 크고 작은 후원금으로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그중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건 매달 5만 원씩 후원한 단체와 어떤 단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후원하고 받은 기념품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합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꾸준히 응원하는 마음은 큰 성취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모교를 아끼는 동문의 꾸준한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후배 동문의 소중한 후원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심으로 모교를 아끼는 동문의 꾸준한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후배 동문의 소중한 후원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연결된 동문, 재학생, 학교가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하도록 이끄는 역할이 우리 총동문회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 대학 경쟁력 제고와 활발한 소통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모교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해 대학 평가 순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우수 논문 발표자의 해외 학회 참여나 교수와 학생의 해외 문화탐방 시 행정적 절차와 예산문제로 학교가 미처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총동문회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문계열 국제 학술지 창간을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학생들은 총동문회가 가까이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졸업 전에 총동문회와의 접점과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젊은 졸업생들이 총동문회에 관심이 적은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차차 해결될 거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소통과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동문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총동문회 외에도 단과대학, 직능별, 동아리 등 단위 동문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접점이 많고 심적으로 가까운 동문들이 잘 뭉치게 마련입니다. 그 끈끈함을 기반으로 단위 동문회에서 후배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소통하며 총동문회에서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애써준 동문들을 존중하고 그 숭고함을 이어갈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연대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 회장님이 강조하시는 따뜻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총동문회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게 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총동문회가 2인 3각 경주를 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문과 학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발을 맞추고, 재학생들이 돌을 묶는 끈이 되는 셈입니다. 동문은 졸업한 학교로부터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돼야 학교가 대외적으로 높게 평가 받습니다. 그 핵심인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버팀목은 또 동문입니다. 이렇듯 서로 연결된 동문, 재학생, 학교가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하도록 이끄는 역할이 우리 총동문회의 소임이라 믿습니다.

• 동문, 재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동문회는 단순히 졸업생들의 친목 모임을 넘어 모교의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모교가 발전하려면 그 중심은 재학생입니다. 사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개인적인 활동을 하든 사회에서 제 몫을 찾는 시기를 거친 후에야 나의 완성을 이끌어준 모교를 향한 애뜻함이 생기곤 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 총동문회를 찾고, 모교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저는 재학생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실하게 자라 소중한 재학생 한 명 한 명이 우리 대학의 자부심으로 자리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언젠가 나의 뿌리가 닿아있는 곳이 우리 한국외대라는 걸 깨달을 때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는 동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끝으로 총동문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포부를 들려주세요.

우리 동문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한국외대라는 이름 앞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응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따뜻한 연대의 힘을 믿습니다. 동문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를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를 품는 외대, 서로를 품는 동문회'를 이룩하기 위해 제35대 총동문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언어철학과 미술 작업으로 한국외대의 이름을 널리 알려온 이재원 독일어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뜻깊은 소식을 알려왔다. **이제는 명예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며 연구와 예술 활동에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이재원 교수로부터 희망찬 포부를 들어보았다.**

• **교육부 주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최교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세요.**

지난 10여 년간 약 50편의 텍스트언어학과 수사학, 번역학 및 화용론 관련 저·역서와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텍스트언어학사, 연대기학에서 메타히스토리오그래피로>, 조신 박사(서강대)와 공동저술한 <텍스트중심 번역학> 등이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에 선정돼 10년간 연구지원을 받게 됐고, 연구 테마는 언어철학사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매해 5편 정도의 언어철학 분야의 연구발표를 해왔고, 2025년 12월에 그간 발표한 언어철학사 관련 연구논문들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연구를 향한 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또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언어철학 연구가 의미 있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연구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 연구는 서양 언어철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언어관에서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고, 그 변화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를 ‘로고스(logos)’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아 서양 언어철학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사상적 계보로 다시 읽어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양 철학에서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라는 긴 역사를 하나의 뿌리에서 다시 정리한 연구입니다.

• **이번 수상이 교수님의 언어철학 연구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번 수상은 연구를 마무리했다기보다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언어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중세와 근대의 언어 사상과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장기적인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매년 몇 편의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이러한 연구를 조금씩 축적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진행해 온 연구들을 종합하여 ‘언어철학사’라는 보다 체계적인 저술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 **교수님은 평소 굵직한 미술대전에서 수상하는 등 미술 작업도 활발히 해오셨습니다.**

198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림촌 동아리에서 그림을 시작했으니 거의 45년 정도 작업해 온 셈입니다. 솔직히 학부 재학시절에는 공부보다는 그림에 미쳐있다고 했습니다. 방학이면 일주일 넘게 스케치 여행을 다녔고, 10여 년간의 독일 유학 시절에도 꾸준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귀국 후에는 그림촌 졸업생들을 모아서 ‘프러시안 블루’라는 모임을 만들어 해마다 인사동에서 그룹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들판으로 스케치를 떠납니다. 들판을 거닐면서 작품구상을 하고, 연구논문 구상도 합니다. 임진강, 강화도, 교동도, 신도, 시도, 장봉도, 북한산 근처, 한강 어귀, 인천의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을 즐겨 찾으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작품을 구상합니다. 자유가 제 작업의 원천이지요. 그러다 8년 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상하면서 공모전에 출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0여 회 정도 입상했네요. 그중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처음 입상했던 ‘대명포구’는 제 인생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 기증해서 지금 백년관 로비에 걸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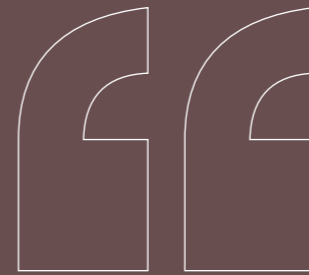
•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들려주세요.**

저는 올해 2월 28일부로 그간의 교수직을 마무리했습니다. 명예교수로서 얼마간은 강의를 계속하고, 연구와 작업시간도 많이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연구하다가 지치면 붓을 들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도 작업도 언제나 새롭습니다. 지금은 저와 같이 은퇴한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박준철 교수와 마르틴 루터의 일생을 담은 마르틴 브레히트의 대작을 번역 중입니다. ‘언어철학사’는 조만간 고대 부분을 마무리 지어 저서로 펴낼 생각입니다. 돌아오는 4월경부터는 경인미술대전, 남농미술대전,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등에 출품하기 위해 작업에 몰입할 작정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은퇴 이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처럼 한국외대와 함께한 긴 세월을 발판삼아 뜻깊은 은퇴 생활을 채워 나가려 합니다.

끝나지 않는 질문, 언어철학의 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이재원 독일어과 명예교수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일깨워줬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와 작업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입니다.

저에게 연구도 작업도 언제나 새롭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외대의 연구산학협력 역량

전종근 연구산학협력단장
임승호 연구산학협력부단장

기획총괄팀

산학재무회계팀

연구지원1팀

연구지원2팀

산학지원팀



대학의 역할은 크게 학문을 보존·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해 사회에 활용하는 데 집중된다.
그렇기에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의 활동은 항상 대내외적으로 주목받는다.
여기에 연구산학협력단이 지난 연말
난민전문통역인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소식은
산학협력을 넘어 국가에 기여하는
대학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낸 사례로
우리 대학에 큰 기쁨을 선사했다.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센터

다문화교육원

공동기기원

지산학협력R&DB센터



＊
글로벌 연구
선도대학으로 부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연구지원 전담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전종근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보다 자세히 협력단을 소개한다.

우리 협력단은 2004년 설립 이후 대학의 연구성과 창출과 산업체 협력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지원 및 기술사업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과 국가·지역 산업 발전 기여가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협력단은 글로벌캠퍼스에 본점(기획총괄팀, 산학재무회계팀, 연구지원2팀, 산학지원팀)과 서울캠퍼스에 지점(연구지원1팀)을 두고 있으며, 행정직원 19명과 연구원 약 100명을 상시근로자로 하여 연 260억 원의 연구비 규모로 운영됩니다. 부속기관으로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대학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산업계와 연결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술이전센터,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다문화교육원, 첨단 연구기기를 확보해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동기기원,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원하는 지식산학협력R&DB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외대의 산학협력 체계를 실효성 있게 성장시키려면 연구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

임기 동안 연구자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교수님들이 연구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협력단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행정 부담은 덜어내고 연구 인센티브와 인프라는 확충해 도전적인 연구성과를 끊임없이 창출시키려 합니다. 이른바 ‘연구하고 싶은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연구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의 첫째로 작년에 도입한 ERP 시스템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자가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 했습니다. 이제는 ERP 시스템으로 연구비 신청과 집행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외부 과제의 경우 제때 연구비를 받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비 선집행을 통해 차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확대해서 더 많은 국제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대형 과제 수주를 돕기 위해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객원 연구교수를 채용해 과제 기획과 제안서 집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글로벌 연구 선도대학으로 도약할 계획도 인상적이다.

우리 대학은 세계적인 언어·지역학 자산을 AI 및 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에 맞춰 해외 우수 기관과의 협력을 전폭 지원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다양한 연구 지원기관들의 공모 사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지원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의 강점 중 하나인 한국학 연구를 전 세계 한국학과 교수진과 팀을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IRN 지원사업은 유망 해외 기관 연구자와 공동으로 논문을 출간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교수님이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공정책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성과 인정

산학협력 강화를 담당하는 협력단인 만큼 기업, 지자체, 정부 기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도 탁월한 편이다.

기업, 지자체, 정부 기관 등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특히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를 잇는 외대형 융복합 모델을 고도화하는 게 우리 협력단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대학이 실질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를 내면서 지역과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교육부와 지자체의 공동지원사업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산·학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대학이 소속된 지자체의 산업체와 공동연구, 애로 기술 해결, 공용장비 지원사업이 강조되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산단 산하의 ‘지산학협력R&DB센터’와 우리 대학의 G-RISE 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수요기반 기술 검증(PoC), R&DB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단의 노력이 반영돼 지난 연말 난민전문통역인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임승호 연구산학협력부단장은 우리 대학의 전문연구역량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표창은 우리 대학이 보유한 통번역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정책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통번역대학원 정철자 교수 연구팀이 수행해 온 연구를 통해 난민심사 면접 통역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난민 통역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을 실어 왔습니다. 또 난민 심사 과정에서 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절차적 공정성과 인권 보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우리 대학의 전문 연구 역량이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력단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난민 전문통역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협력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대학은 세계적인 언어·지역학 자산을 AI 및 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해외 우수 기관과의 협력을 전폭 지원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의 역동성과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지·산·학 연결하는
튼튼한 가교

임승호 부단장은 연구성과가 사회에 반영된 배경으로 협력단 구성원들이 자산학의 가교로서 자부심과 노력이 큰 조직이라는 점을 꼽았다.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의 역동성과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설립 초기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1개 팀이었던 저희가 현재는 5개 팀 20여 명의 인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넘어,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 성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HK(인문한국) 지원사업 및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반도체부트캠프 사업 등 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작년에는 RISE 사업을 수주해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현장의 수요를 연구실과 연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협력단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연구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체를 잇는 단단한 가교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조직이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전종근 단장은 앞으로 교내 연구소 지원사업 제도 개편과 기술사업화 강화 등 다양한 변화를 앞두고 있기에 포부가 남다르다.

우선 우리 협력단을 연구비 관리 위주의 조직에서 향후 수주력이 강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직원이 신규 수주에 이바지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교수 및 연구소가 대형집단과제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연구활동 사업준비금 제도와 교내 연구소 지원사업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협력단은 전국 평균보다 산학협력수의 비중은 높고 기술이전, 사업화 비중은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 대학의 약점인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부분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장기적인 산학협력수의 창출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속기관인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센터, 다문화교육원, 공동기기원,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의 활동을 장려해 우리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는 연구산학협력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험,



박지원
국제금융학 22



무역의 전 과정을 경험하는 GTEP 프로그램

GTEP(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무역 실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이 기업과 협력하여 제품 소싱부터 해외 시장 조사, 바이어 미팅, 전시회 참가, 수출 마케팅까지 무역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론 강의가 아니라 팀 단위 실전 프로젝트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GTEP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월에 참가한 'IMCAS World Congress 2026'은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미용의학, 피부과, 성형외과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전시 및 학술 행사다. 전 세계 20,000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모이는 이 자리는 단순한 제품 전시뿐 아니라, 최신 기술 발표와 패널 토론까지 이뤄지는 미디어·에스테틱 업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장 감각과 마케팅 역량 익히고 싶어 지원

국제금융학과에 들어오면서 무역과 금융 관련 강의들을 들을수록 무역 현장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화교류와 무역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 온 이후 글로벌 무역 특강과 같은 강의를 들으며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직감했고, 관련된 기회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GTEP이 실제 무역 프로세스를 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보를 알게 돼 지원했다. 또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광고·PR·브랜드 지식을 무역 실무에 접목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컸다. 제품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일은 결국 마케팅과 무역이 맞물리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적인 경험에 녹여볼 수 있는 활동이라는 기대감에 즐겁하기 전 꼭 한번 GTEP에 참여하고 싶었다.

삶의 방향을 비추다

막막했던 시작, 성장으로 마무리

학생 신분으로 해외 전시회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 모두 매우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두가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였기에 힘든 점도 있었다. 기업 리스팅, 콜드 메일, 바이어 컨택, 전시 운영까지 처음 해보는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초반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과정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 더불어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다.

그리고 GTEP 활동을 통해 식품, 뷰티 등 다양한 산업군의 전시회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바이어와 직접 소통하며 얻는 배움이 이론과는 달랐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IMCAS World Congress 2026'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인 환경이었고, 국가별 바이어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기술 관련 인증이나 임상 근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시회에서 직접 응대했던 바이어들 중 다시 부스에 방문하여 계약의 뜻을 비치는 사례를 보며, 매일매일 더 설득력 있게 소통할 방법을 고민하곤 했다.

1년 동안 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험도 소중했다. 역할을 나누고 이견을 조율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강점을 살리며 협동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학과 전공과 부전공에서 쌓아온 지식이 실전에서 실제로 맞물리는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다.



삶의 방향 점검한 소중한 경험

파리에서 돌아오며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본격적으로 무역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인턴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 분석 능력과 바이어 대응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해외 인턴십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력을 더 단단히 쌓을 계획이다.

이번 GTEP 활동과 IMCAS 파리 전시는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준 시간이었다. 언젠가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글로벌 현장에 뛰어들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국제 무역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올해 서울캠퍼스 2,199명, 글로벌캠퍼스 1,801명 등 2026학년도 신입생 총 4,000명이 입학했다. 입시를 준비하며 치열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새내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며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그 설렘의 감정이 얼굴을 밝게 물들인 2026년 신학기, 새내기 대표 학생 세 명을 만나 한국외대와 시작하는 캠퍼스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봄과 함께 찾아온 2026년의 주역들

I am

다양한 언어와 기회를 만나는 곳, 한국외대

2026년의 주역, 한국외대 신입생으로 입학한 소감과 입학 계기를 물었다.

최인혁 평소 자연어처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어와 인공지능이 만나면 사람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늘 궁금했고, 자연스럽게 언어공학자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입학한 Language & AI융합학부가 제 꿈에 가장 적합한 학과라고 생각해 입학 결심했습니다.

추보민 저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넓은 사고를 기르고 싶어서 한국외대를 선택했습니다. 몇 주간 수업을 듣고 생활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석현 바이오와 IT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두 분야가 결합된 바이오메디컬공학부가 있어 한국외대를 선택했습니다. 입학 후에는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 학교가 그러한 환경이 잘 갖춰졌다고 느낍니다.

지금은 환하게 웃을 수 있지만, 입시를 준비할 때는 누구보다 피땀 흘렸을 새내기들이다. 오랜 수험생활을 마치고 캠퍼스에 첫발을 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정석현 처음 교정에 들어섰을 때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과 더불어 이러한 변화 자체가 저의 성장 과정이라는 생각에 설렘이 컸습니다.

최인혁 재수를 하면서 학원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느라 좁은 세상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격 후 교정에 들어섰을 때 갇혀 있다는 감정은 훌훌 사라졌고 '나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최인혁 Language & AI융합학부

추보민 자유전공학부

HUFSan

지식과 문화를 습득하며 세계로 나아가다

전공 수업 외에도 우리 대학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기대되는 활동이나 수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인혁 가장 기대되는 활동은 7+1 파견학생 제도입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우리 대학 슬로건처럼 한 학기를 해외 협정 대학에서 보내며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추보민 자유전공학부의 가장 큰 장점인 다양한 수업을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 부딪쳐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외대인'이 됐다. 어떤 학생이 되고 싶은지 포부를 물었다.

추보민 스스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어진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제 전공처럼 여러 선택지 앞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며 저만의 기준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많이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정석현 열린 사고를 갖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외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두루 접할 수 있습니다. 전공 지식을 성실하게 쌓으며 학업적인 기본기를 갖추고, 여러 사람과 유연하게 소통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외대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4년, 그 후에는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최인혁 저는 재수를 통해 입학한 만큼 다른 학생들보다 더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우리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것은 물론 각종 대회와 공모전에 도전하는 등 치열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치열함을 발판삼아 졸업 후에는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정석현 학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활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졸업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을 꿈꿉니다.

추보민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경험하고 제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무렵엔 스스로 선택한 진로에 분명한 기준과 확신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든 성실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석현 바이오메디컬공학부

“No Fears, Born to Be” K콘텐츠에서 K민주주의로

2026년 3월은 K콘텐츠 역사에서 두 개의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만하다. 하나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Demon Hunters>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고, 축하 무대는 한국 전통 의상과 퍼포먼스로 과감하게 꾸려졌다.

다른 하나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의 컴백 공연.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와 역사의 중심지가 세계적인 K팝 그룹의 귀환을 맞은 공연장으로 변모하여 190여 개국에 생중계되었다.

이 두 장면은 오늘날 K콘텐츠가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대중문화는 이제 주변부의 주목할 만한 특이한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 산업의 메인 스트림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위상 변화는 관련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국가 소비자들에게 있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와 추천 의향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8년 연속 K팝이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 트렌드 분석 역시 K콘텐츠의 파급력이 음악과 영화를 넘어 한국어, 관광,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K콘텐츠는 개별 장르의 성공 및 경제적 성과 도출을 넘어 일상 문화와 산업 생태계, 국가 이미지 형성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K콘텐츠는 글로벌 소프트파워의 정점에서 산업정책, 디지털 플랫폼, 대중 팬덤을 전방위로 통합하는 문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K콘텐츠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기호가 바로 '응원봉'이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장에 모인 영화계의 슈퍼스타들이 다함께 응원봉을 흔드는 낯선 광경이 보여주듯이, 응원봉은 K팝 팬덤이 만들어낸 참여와 소통의 매개체이다.

그것은 객석의 관객을 소극적 수용자로 남겨두지 않고, 리듬과 빛, 몸짓을 역동적으로 발산하는 집단 정동 속으로 매혹한다. 응원봉이 촉발하는 K콘텐츠의 경험은 사용자가 보고 즐기는 공유하는 콘텐츠의 핵심 서사와 감각의 문법을 강력하게 구조화하며 대중의 효능감을 증폭한다.

K콘텐츠를 지탱해온 팬덤 문화의 상징인 응원봉은 최근 또다시 진화하며 참여와 소통의 관행을 K민주주의로 재매개하고 있다. 2016년 촛불혁명과 2025년 빛의 혁명을 거치면서 응원봉은 비폭력과 연대, 민주시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시위 문화에 거리감을 느꼈던 청년층과 여성들에게 응원봉은 한층 익숙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공론장에 참여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내란의 겨울,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것을 높이 들어 지켜낸 광장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봄에 전 세계 K팝 팬들과 다시 만나 뜨겁게 환호하는 장면은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K콘텐츠와 K민주주의가 서로를 북돋우며 공진화하는 감동의 서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K콘텐츠와 K민주주의는 각각 문화와 정치의 언어로 구분되지만, 이 둘을 이어주는 핵심 개념이 '문화 민주주의'이다. 문화의 민주화가 양질의 문화를 하향식으로 전파하는 데 집중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문화를 창조하고 해석하며 발산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도록 촉진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K콘텐츠의 생명력은 대중을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해석의 과정으로 친근하게 이끌며, 아래로부터 의미가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는 개방적 흐름 속에서 피어난다. K민주주의 역시 같은 토양을 먹고 자란다. 시민 각자가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연결하는 주체가 될 때, 문화는 비로소 살아 있는 힘이 되고 민주주의 또한 깊어진다.

그런 점에서 K콘텐츠의 지속성은 창작의 자율성, 문화적 다양성, 해석 공동체의 개방성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가장 정교하게 구현한 성취가 K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K콘텐츠가 독특한 참여와 소통의 문법을 세계에 확산시켰다면, K민주주의는 그 감각과 미학이 공론장 안에서 어떻게 제도적 실천의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문화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서로를 꿈꾸며 조우한다.

“Oh,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No fears, born to be”, <Golden>의 노랫말은 이제 K팝의 자신감 넘치는 활기찬 수사를 넘어선다. 그것은 현재의 K콘텐츠가 글로벌 팬들에게 건네는 메시지이자, K민주주의가 동시대 세계 시민에게 외치는 호소이기도 하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두려움 없이 연대하고 주저함 없이 함께 나아가는 것. K콘텐츠가 글로벌 문화 권력이 되었다면, 이제 그 힘은 더 넓은 공론장과 더 성숙한 시민성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야말로 지금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진정성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국가들과 소통을 지속해온 우리 외대인들에게 이러한 시대는 더욱 각별하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지역을 횡단하며 통섭하는 역량이 우리의 황금시대를 지속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 없이, born to be HUFFS!



김민형 융합인재학부 교수



H

U

HUFS NEW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New Members

CUFS News

HUFS Institutes

HUFS Books

더 많은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ufs.ac.kr>

F

S



한국외대·네이버클라우드, AI 인재 양성·스마트캠퍼스 구축 협력

■ AI 인프라 활용 및 스마트캠퍼스 구축 등 대학 AI 전환 협력

우리 대학은 3월 13일,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와 AI 기반 교육·연구 혁신, AI 스마트캠퍼스 구축 등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인프라 구축 및 대학 AI 전환 지원 ▲AI 기반 스마트캠퍼스 구축 ▲AI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 ▲AI 중심대학 사업 참여 및 관련 프로그램 공동 추진 ▲AI 전문 인재 양성 및 산학 인력 교류 ▲AI 교육 및 연구 생태계 확산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수행 등 AI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기훈 총장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통해 언어·지역·인문 기반의 글로벌 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 기술이 실제 교육과 연구 현장에 활용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년도 신년 하례식 개최

1월 2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2026년도 신년 하례식이 개최되었다. 김종철 이사장은 “지난해 주요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운 전 총장을 비롯한 대학 집행부와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한 해를 회상했다. 박정운 전 총장은 “지난 4년은 서울글로벌캠퍼스 학문 구조 정비, 첨단분야 학과 신설, 자유전공 입학전형 도입, 송도캠퍼스 2단계 개발 등 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의 시간이었다”라고 진단하였다. 강기훈 총장은 “외국어 교육과 국제·외교 분야에서 축적해 온 외대만의 전통을 중심으로 삼아 대학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외대·한국물기술인증원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1월 9일,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203호 회의실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증제도의 선진화와 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 협력과 인프라 시설 공동 활용을 바탕으로 물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동 세미나 및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먹는 물 모니터링과 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인증원 소속 인력이 한국외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GTEP사업단, '임카스파리(IMCAS)' 전시회 참가

GTEP(Glob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사업단 19기 학생들이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MCAS 국제 미용성형학회(IMCAS World Congress)'에 참가해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학생들은 현지 전시 현장에서 산업별 트렌드와 바이어 수요를 직접 파악하며 무역 실무 경험을 쌓았다.



사범대학·교육대학원,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우수 등급 달성

교원양성기관(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은 교육부가 주관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B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미래형 교원 양성 체제 전환 여부를 중심으로 총 24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됐다. 진단 결과 B등급 이상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 대학은 5주기 진단 당시 C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를 달성했다.



정치외교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업무협약 체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원장 김용권)과 선거·정치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선거·정치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학점 인정 정규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선거·정치 교육 관련 학술연구, 세미나·포럼 개최와 정기간행물·논문 등 학술자료 교환 ▲선거·정치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및 연구 인력 교류와 개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G-RISE 사업단, '2026 G-RISE TECH-CONNECT' 개최

G-RISE 사업단은 지난 2월 6일,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11층 명수당홀에서 '2026 G-RISE TECH-CONNECT'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차년도(2025년)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최신 기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과제 참여 교수·학생·기업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MMD, e스포츠 교육 활성화 위한 MOU 체결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은 지난 3월 5일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MMD와 e스포츠 교육 활성화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e스포츠 실습실 개관과 함께 진행됐으며, MMD는 필립스(Philips) 브랜드 게이밍 모니터 등 e스포츠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후원해 실습 환경 구축을 지원했다.



영어교육과,故 이응호 교수 추모식 주최

1월 26일 본관 13층에서 영어교육과 퇴임교수인 이응호 교수의 추모식이 있었다. 지난 11월 14일에 별세한 이응호 교수를 기리며 영어교육과 82학번을 중심으로 주최됐다. 추모식에는 20명이 넘는 동문들이 함께 하며 사랑의 교육을 실천한 고인을 추도하였다. 더불어 제자의 기탁으로 시작된 이응호 장학금은 현재 딸 Julie Lee Hwang의 기부를 통해 운용되고 있다.



한국외대·후지쇼글로벌, 방글라데시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복수학위과정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14일,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김강용 후지쇼 글로벌(Fujisho Global Ltd.) 부회장과 접견을 갖고, 방글라데시 노스사우스대학교(North South University, 이하 NSU)와 체결한 신·편입 및 공동학위(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2025년 12월 우리 대학과 NSU 간 체결된 학부 복수학위 과정 협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방글라데시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후지쇼 글로벌은 본교와 NSU 간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일부를 포함한 장학금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2026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2월 20일, 2026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서울·글로벌 양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대학원 학위수여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열렸다. 서울캠퍼스 학부 학위수여식은 오전 11시부터 단과대학(독립학부)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글로벌캠퍼스 학부 학위수여식은 오후 2시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전체 행사로 개최되었다. 이번 2026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2,936명(학사 2,261명, 석사 593명, 박사 82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한국외대·LG CNS, AI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 분야 공동연구 및 계약학과 추진 등 산학협력 확대

우리 대학은 3월 17일, 서울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LG CNS(사장 현신균)와 AI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대학이 축적해 온 다국어·지역학 교육연구 역량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대상 AX(AI 전환) 사업 실적을 보유한 LG CNS의 기술·사업 역량을 결합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AI 전문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계약학과 추진을 포함한 산학 인적교류 및 글로벌 AI 인재 양성 ▲AI 중심대학 사업 관련 제반 교류 및 성과 공유·확산 ▲AX·DX 분야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 상호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수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계약학과 추진을 통해 LG CNS가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AX 실무 경험과 사례를 대학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옥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이사장, 발전기금 20억 원 기부

■ 서울캠퍼스 복합문화공간 설립...인문학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난 1월 21일, (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에서 김정옥 이사장이 인문학 교육 발전과 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 20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발전기금 기부 서명식에는 김정옥 이사장을 비롯해 기종석 이사, 박정운 전 총장, 김민정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해 기부의 뜻을 함께 나눴다. 이번 기부금은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대강당에 조성될 '복합문화공간 영산출(기칭)' 설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공간은 인문학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2005년 설립된 (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은 유럽 정신문화와 인문학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장학·학술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김정옥 이사장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 재단을 이끌고 있다. 재단은 그간 우리 대학 유럽 관련 학과와 인문계열 전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장학 지원을 이어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우수' 3회 달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사업의 2025년 연차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해당 5년 사업기간 동안 3회 '우수' 평가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장이 확정돼 2026년 16억6천여만 원 규모 국고를 1년간 추가 지원받게 됐다. 우리 대학은 2016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형)」, 2022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녹취록'팀, 제7회 청소년체커톤 대학부 대상 수상

정혜원(언론·정보 23), 서지우(언론·정보 23), 이예선(방송·영상·뉴미디어 23) 학생으로 구성된 '녹취록'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 후원한 '제7회 청소년체커톤'에서 대학부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농촌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재 때문일까?'를 주제로 팻트체크를 수행했다.



'옥남정' 팀, KOICA 글로벌 서포터스 WeKO 7기 대상 수상

김옥비(한국어교육 19), 김남희(스페인어 21), 이정빈(국제학 22) 학생으로 구성된 '옥남정' 팀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서포터스 WeKO 7기 활동에서 최종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아이디어톤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 실행팀으로 선발되었고, KOICA ODA 사업국 중 하나인 몽골 현지에서 캠페인을 직접 수행해 대상을 수상하였다.



환경학과 BTS팀, 대학생 종합설계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환경학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연구팀 BTS(Build Treatment Sustainability)가 사단법인 대한환경공회회가 주관한 '제13회 대학생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환경학과 이성종 교수의 지도 아래 구성된 BTS 팀은 임동희(대표), 김윤성, 서민주, 이한빈, 이수지 학생으로 이루어졌으며,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벤츄리 믹서(Hybrid Venturi Mixer, HVM)'를 주제로 작품을 출품했다.



HUFS Start-up Platform 학생창업팀, '제11회 용인특례시 대학연합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우수상 수상

글로벌창업지원단(단장 이정) HUFS Start-up Platform 소속 학생창업팀이 '제11회 용인특례시 대학연합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의 학생창업팀 '커넥트인'은 AI 기반 통합 옥외광고 솔루션을 창업 아이템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아트리빙' 팀으로 AR·VR 기반 가구 인테리어 디지털 경험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국외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전국 대회 2개 부문 수상

지난 1월 30일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수기 공모전'에서 허운서 학생(인도어 20)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주관 '참여학생 사례영상 경진대회'에서는 '한국외대 부스터' 9기(김예진 루마니아어과 21 외 6명)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교내 혁신 프로그램이 외부에 공유 가능한 우수 사례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줬다.



교육혁신원, 제4회 HUFS 혁신성과 공유포럼 개최

교육혁신원은 1월 7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HUFS 혁신성과 공유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며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성장하는 상장(相長)'의 의미를 바탕으로,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 경쟁력과 혁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학습과 연구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확산 전략을 모색했다.



용인미래정책 제안공모전서 한국외대 2개 팀 우수상 수상

용인시가 주최한 2025 용인미래정책 제안공모전에서 우리 대학 학생 두 팀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자수(지식콘텐츠전공 20), 박예리(융합인재학부 21), 박제은(융합인재학부 21)으로 구성된 'X-RTIST' 팀은 'AR 창의돌봄교실: 용인시 디지털 놀이정책 시범사업'을 주제로 정책을 제안했다. 김민재(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전공 19), 김요한(융합인재학부 19), 이도현(융합인재학부 23), 이정현(융합인재학부 21), 홍순채(융합인재학부 18)로 구성된 '모현오형제' 팀은 '조아용과 떠나는 숨은 용인 가상투어'를 주제로 정책을 제안했다.



펜싱부, 제27회 전국 남녀 대학 펜싱선수권대회 다수 입상

펜싱부(HUFS FENCING, 지도교수 박경은)는 전남 해남에서 열린 '제27회 전국 남녀 대학 펜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다수 입상했다.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서는 김유빈(태국어통번역 21), 한지운(스페인어통번역 19), 이기령(중국어교통상 22), 장효명(영어통번역 25) 학생이 팀을 이뤄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여자 플뢰레 단체전에서도 손재경(노어 19), 박지민(스페인어통번역 21), Hortense(국제학 23), 김은애(영미문학문화 23) 학생이 출전해 3위에 올랐다. 개인전에서는 Hortense(국제학 23) 학생이 여자 플뢰레 개인전 2위, 손재경(노어 19) 학생이 3위, 이기령(중국어교통상 22) 학생이 남자 플뢰레 개인전 8강에 오르며 개인 기량을 입증했다.



2025 겨울 '외대캠 영어브릿지' 수료식 개최

교육혁신원은 2월 5일 서울캠퍼스에서 2025년 겨울방학 동대문구 초등 영어특강 '외대캠 영어브릿지' 수료식을 개최했다. '외대캠 영어브릿지'는 영어 학습 전환기를 맞이한 초등 고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영어 학습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구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방학 집중 프로그램이다.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까지 2회 연속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우리 대학과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외대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대학 협력 기반의 교육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 서울캠퍼스 2,199명, 글로벌캠퍼스 1,801명 등 2026학년도 신입생 총 4,000명 입학

2월 27일, 2026학년도 입학식이 서울·글로벌 양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입학식은 양 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입학 축하 영상 상영이 진행됐다. 이어 기수단 및 내빈 입장, 국민의례, 내빈소개,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강기훈 총장 축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기훈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이제 '합격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과정"이라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힘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양 캠퍼스에는 가족과 친지, 선배 재학생 등 외대인들이 함께 자리해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EU연구소



EU연구소·글로벌사우스포탈안보전략연구소, 3개 기관과 '2026 공동학술회' 개최

EU연구소와 글로벌사우스포탈안보전략연구소는 2월 9~10일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EURAXESS KOREA와 공동으로 '2026년 공동학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 이들이 직면한 생태·사회·안보 문제를 다루는 학술적 논의의 장이었다.

국제지역대학원



인도&태평양 연구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국제지역대학원 인도&태평양 연구팀이 2025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었다. 본 연구팀은 2022~2025년(3년간)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21세기 초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주의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국제지역연구소



HK+국가전략사업단, 제5회 학문후속세대 논문 공모전 시상식

국제지역연구소 HK+국가전략사업단은 지난 1월 27일,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제5회 학문후속세대 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스타디팀 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25년 스타디팀 논문 사업에는 총 2팀이 선정되었다. 사업단은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점진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역사문화연구소



생태접경사연구단, 제1회 국내학술대회 개최

역사문화연구소는 2월 2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만주·한반도의 생태 접경지역과 한국 고대의 군사외교 루트>를 주제로 제1회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본 학술회의를 통해 만주·한반도의 생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와 생태환경을 접목시킨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했다.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월요초청 세미나 개최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2월 10일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칠레 센트럴대학교 최진욱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월요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 교수는 <글로벌 연대에서 로컬 실천으로: 칠레 K-pop 팬들의 '에코 시민성'의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적 글로벌 연대가 로컬 차원의 생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중아시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알마티 경영대학교와 MOU 체결식 성료

3월 4일, 중앙아시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은 서울캠퍼스 어문학관 206호에서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주제로 카자흐스탄 주요 인사를 초청한 강연 및 학술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특강 이후에는 알마티경영대학교(Almaty Management University)와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돼 향후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학생 및 연구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이스포츠포럼연구소



제1회 글로벌 e스포츠 포럼 개최

글로벌이스포츠포럼연구소는 지난 12월 4일, 글로벌캠퍼스 공학관에서 '제1회 글로벌 e스포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이스포츠포럼연구소 창립을 기념해 마련된 첫 학술 행사로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후원했다. 주제 발표 부문에서 발표자들은 국가별 현황, 팬덤 문화, 기술 적용을 아우르는 정책 기반과 향후 전략 방향을 제안했다.

동남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명사 초청 특강 개최

동남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단은 3월 18일,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이 연사로 초청되어 '조선의 도시 울산 동구, 이주노동자와 지역사회 공존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태선 의원은 이주노동자 쿼터 하향 조정, 지역 재정 지원 확대,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러시아연구소



Russia Report 연례 세미나 개최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은 지난 1월 9일 연례 보고서 Russia Report 발행의 일환으로 연례 세미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2026 러시아를 전망한다'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동시에 '중전 이후'를 상정한 담론을 여러 분야 전반에서 모색하는 자리였다.

철학과



중국 런민대학 철학원과 공동 학술교류 워크숍 개최

철학과는 지난 1월 22일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學) 철학원(원장 臧峰宇)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유학의 대화와 전개 & 동아시아 철학 청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술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양교 교수진과 학생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동아시아 철학 연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국제적 학문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폴란드학과



'2025 한국문학번역대상' 수상자 초청 강연회 개최

폴란드학과는 2025년도 한국문학번역대상 수상자인 유스트나 나이바르-밀러(Justyna Najbar-Miller) 번역가를 초청해 '낯선 언어와 사랑에 빠진 사람: 한강 작가를 폴란드로 이끈 번역가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나이바르-밀러 교수는 한국어 전공 선택 과정, 한강 작가와 인연을 맺게 된 경위, 대표 작품들의 번역 과정에서 고민과 해결 방식, 폴란드 독자들의 수용 양상 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번역의 실재를 소개했다.

지식출판콘텐츠원



'2025 올해의 우수도서'에 도서 3종 선정

한국대학출판협회가 주관하는 '2025 올해의 우수도서'에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이 발간한 도서 3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도서는 대학교재 부문 '기업법 요론: 변호사, 법무사, CPA, CTA 시험대비서(박한성 지음)'이며, 우수도서는 학술 부문 '채식주의자의 창조적 배신(윤선경 지음)'과 교양 부문 '발행물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임우영 옮김)'이다.



박정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AI시대교육특별위원회·AI인재양성추진단 위원 위촉

박정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는 지난 11월 28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12월 16일에 교육부 인공 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위원으로 각각 위촉되었다. AI시대 교육 특위는 AI 및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중심으로 직능, 성별 등을 균형 있게 안배해 인승문 위원장을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AI 인재양성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교육계,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이재원 독일어과 명예교수, 교육부장관상 수상

이재원 독일어과 명예교수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선정에서 이재원 교수는 인문학 분야 연구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헤라클레이토스의 언어관을 바탕으로 서양 언어철학사의 기원」을 규명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연구는 고대에서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언어철학의 흐름을 새로운 계보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업으로, 고대 철학의 논의가 현대 언어철학·의미론·해석학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고대 철학의 학문적 가치를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윤희 언어연구소 교수, 세계기호학회 공식 학술지 세미오티카 최우수논문상 수상

이윤희 언어연구소 교수가 세계기호학회(IASS-AIS) 공식 학술지 '세미오티카(Semiotica)'의 최우수논문상 수상자(2025 Mouton d'Or Award)로 선정됐다. 이윤희 교수는 2008년 동일 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윤희 교수의 수상 논문은 2025년 266호에 게재된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자아성 규명에 있어서 정서의 역할, 미학적 행위 및 내러티브 기호과정〉이다. 해당 논문은 퍼스의 범주론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호 활동 내에서 규명되는 자아성을 기호적 행위주체성의 실천적 차원과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한다.



박정오 루마니아학과 교수, 루마니아 바이아 마레(Baia Mare)시 명예대사 위촉

박정오 루마니아학과 교수가 루마니아의 문화와 전통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3일 바이아 마레(Baia Mare)시 명예대사로 위촉되었다. 박 교수는 「루마니아 여행, 교황이 극찬한 성모 마리아의 정원」, 「Travel to Romania, The Garden of Virgin Mary」, 「한 권에 담은 루마니아 역사와 문화 이야기」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루마니아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체계적으로 소개해 왔다.



정성호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UN 국제 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 채택 성과 달성

정성호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포함공대 송환준박찬익 교수 연구팀 등과 개발한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이 2025년 12월 14일 유엔(UN)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됐다. 승인된 표준은 '분산원장 기반 서비스를 위한 고속 메시지 전달 프레임워크'를 다룬다. 이는 블록체인에서 정보를 더 빨리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전송 규칙이다. 이번 ITU 국제표준 채택은 블록체인 산업의 가장 큰 장애였던 실시간 데이터 처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연 교육대학원 교수,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이지연 교육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과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 자문 기구인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제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지연 교수는 학회 분야 위원으로 위촉되어 교정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상빈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한국번역학회 제14대 회장 취임

이상빈 영어통번역학과 교수가 국내 최대 규모의 통번역 분야 학술단체인 한국번역학회(KATS)의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이상빈 신임 회장은 현재 우리 대학 학보 편집인 겸 주간을 맡고 있으며, 그간의 교육 및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동원교육상(2022)과 자랑스러운 외영교수상(2025)을 수상한 바 있다. 이상빈 신임 회장은 한국번역학회 편집위원장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헌신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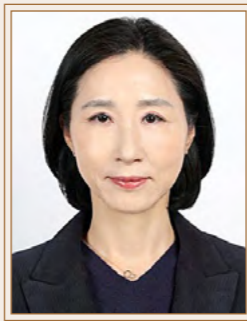
최형용 경영학부 교수, 국민포장 수훈

최형용 경영학부 교수가 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최형용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CP) 자문·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리스크 관리, 감사, 부패 리스크 매핑 및 윤리경영 자문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청렴도 제고와 반부패 청렴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재완 경영대학 교수, 제38대 대한경영학회 회장 취임

양재완 경영대학 교수가 제38대 대한경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대한경영학회는 1956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학 학술단체로, 경영학 전 분야를 포괄하는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한국 경영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양재완 신임 회장은 "대한경영학회가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사회와 산업에 이바지하는 열린 학술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근혜 태국학과 교수, 제28대 한국비교문화학회(KCLA) 회장 선임

신근혜 태국학과 교수가 제28대 한국비교문화학회(KCLA)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비교문화학회는 지난해 12월 6일 총회를 열고 신근혜 교수를 제28대 회장으로 선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년이다. 1959년 창립된 한국비교문화학회는 67년 전통을 지닌 학술단체로, 인문학의 대표적 학제간 융합 연구분야인 비교문화학의 학술적 성과를 교류하고 대학 내 비교문화 및 문화연구의 활성화에 지원하고 있다. 신근혜 신임 회장은 우리 대학 태국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태국문학 석사, 태국 쭈라롱껀대학교에서 비교문화 석사, 우리 대학에서 비교문화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월 12일 부위원장(상임)으로 선출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을 위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김민정 교수는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심의 정책과 제도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

감사원에서 신임 감사위원에 우리 대학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하였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의결과 징계 요구, 심사청구 등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다.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2월 31일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최승필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법리를 형성해 왔다.

2026년 상반기 신입교원 명단

■ 신입교원



- | | | |
|---|---------------------------------------|---|
| 01 서예림
경영대학 경영학부 | 08 조성운
공과대학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 15 Laura Nora Johan Nys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
| 02 류형곤
시용합대학(서울) Language & AI융합학부 | 09 홍성원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 16 Kultida Khammee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학과 |
| 03 안서영
시용합대학(서울)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 10 박성민
시용합대학(글로벌) 시데이터융합학부 | 17 Thi Phuong Trang Nguyen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
| 04 민수영
법학전문대학원 | 11 조소윤
시용합대학(글로벌) Finance & AI융합학부 | 18 Mihir Pandya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
| 05 김성은
경상대학 국제금융학과 | 12 황재영
기후변화융합학부 | 19 Osama Mohamed Attia Mohamed
통번역대학원 한어과 |
| 06 이준현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 13 Iaroslava Pauklova
서양어대학 노어과 | 20 Silvie Novotna
국가전략언어대학 체코·슬로바키아학과 |
| 07 곽호진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 14 Bruna Morelo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 21 Milan Ajdzanovic
국가전략언어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6·7대 총장 이·취임식 개최



■ 제7대 문휘창 총장 취임 “최고의 교육을 실현하는 탁월성” 강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6·7대 총장 이·취임식이 지난 2월 2일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최서연 기획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취임식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김종철 이사장의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 및 치사 ▲6대 장지호 총장의 이임사 ▲공로패 및 기념품 수여 ▲박정운 전 한국외대 총장·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김인철 전 한국외대 및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축사 ▲문휘창 신임 총장의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문휘창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이버한국외대 2.0'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개념 재정립, 한국외대와 전략적 동반 관계 강화, 대학 구성원의 역할 재정립, 새로운 발전 전략 모델 구축 등 네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교육에 대한 접근(Access)을 제공하는 대학을 넘어 최고의 교육을 실현하는 탁월성(Excellence)의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휘창 총장의 임기는 2026년 2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외국어연수평가원

2026년 상반기 외국어 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2026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주간정규과정	2026. 02. 02. ~ 06. 19. (20주, 월~금)
	방학특별과정	2026. 06. 23. ~ 07. 20. (4주, 월~금)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2026. 03. 03. ~ 05. 26. (12주, 화, 목)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2026. 02. 21. ~ 06. 13. (16주, 토)
외사과정	대학원외국어시험 대체과정	2026. 03. 04. ~ 06. 24. (16주, 수)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인원 모집 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 정규과정,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 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 특별과정, 대학원 외국어 시험 대체 과정 등이 있다.

• 문의 02-2173-2557, 2515, 2524 • <http://fittc.hufs.ac.kr> • 이메일 fi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위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위탁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위탁기관의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정부 인사혁신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금융감독원, 롯데인재개발원, 법원행정처, 삼성전자, 삼성SDI,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청, 씨티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EB하나은행,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화그룹, 현대중공업 등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위탁받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 평가로 위탁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마다 지속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문의 02-2173-2515 • 홈페이지 <http://fittc.hufs.ac.kr> • 이메일 fi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직업훈련·체육부(Ministerio de Educacion, Formacion Profesional y Deportes)에서 위임받아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스페인어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2015년부터 공식 협정을 맺은 서울 지역 DELE 시험 시행기관으로, 10여 년간 연 3차례(5월, 7월, 11월) 자격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에는 응시자가 가장 많은 5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한다.

• 문의 02-2173-3593 •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1회	2026. 01. 05.(월) ~ 04. 08.(금)	2026. 05. 22.(금) ~ 05. 24.(일)	시험 응시일로부터 2~3개월 이내
2회	2026. 01. 05.(월) ~ 09. 30.(수)	2026. 11. 13.(금) ~ 11. 15.(일)	

서울평생교육원

2026년 상반기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2026년 상반기 교육일정
통번역과정	통번역기초과정	2026. 03. 07. ~ 06. 20. (15주, 토)
	통번역기초과정 단기특강	2026. 07. 11. ~ 08. 08. (5주, 토)
실용 교양과정	민화 과정	2026. 04. 30. ~ 07. 16. (12주, 수)
	타로 심리상담사 과정	2026. 03. 25. ~ 07. 08.(15주, 수)
	사주 심리학 과정	2026. 03. 26. ~ 07. 02.(15주, 목)
	미국 주식 투자 특강	2026. 04. 30. ~ 05. 21.(4주, 목)

통번역기초과정/단기특강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과정이다. 2014년 개설되어 현재 24기(영어)를 운영하고 있다. 본 과정은 영어·중국어·일본어 총 3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기초과정은 3월과 8월, 단기특강은 7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 문의 02-2173-2515 •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 이메일 edulife@hufs.ac.kr

실용 교양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성인 대상으로 평생교육 실용 교양과정을 신설하였으며, 부동산, 웹소설, 민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개설하여 높은 만족도 가운데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신규 과정으로 '미국 주식' 분야 강의를 새로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양질의 교양과정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02-2173-2524, 2515 •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 이메일 edulife@hufs.ac.kr

FLEX센터

FLEX 정기시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정기 시험은 주요 7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에 대해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에서 시행하고 있다. 모든 평가 언어의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했으며, 2025년부터는 우리 대학이 국가공인자격을 이관받아 직접 운영·관리한다.

2026년 FLEX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차	2026. 04. 30.(목) ~ 05. 06.(수)	2026. 05. 31.(일)	06. 12.(금)	07. 03.(금)
2회차	2026. 10. 08.(목) ~ 10. 14.(수)	2026. 11. 08.(일)	11. 20.(금)	12. 11.(금)

• 문의 02-2173-2537 • 홈페이지(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험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 문의 02-2173-2530 •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6학년도 전기(47기) 교육생

일반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2026학년도 전기 일반 TESOL 과정 및 BYL-TESOL 과정을 개강하였다. 이번 학기부터 BYL-TESOL 과정은 3+3+1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규 3과목은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3과목은 토요일 오후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과목 중 1과목은 영유아 영어교육 특화 과목으로 구성되어 어린이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과정은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학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학기 동안 TESOL 이론과 실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 문의 02-2173-3504

• 홈페이지 <http://tesol.ac.kr>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문화교육원, 2025년도 태국

까셋삿대학교 3+1 특별과정 마무리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 2025년도 까셋삿대학교 3+1 특별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본 과정은 한국어문화교육원이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한 태국 대학교 학점교류 프로그램으로, 까셋삿대학교 한국어 전공 3학년 학생들이 8개월간 본원에서 전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3+1 학위과정이다. 3년 차를 맞이한 까셋삿대 특별과정은 올해 약 100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어문화교육원, 2026학년도

봄학기 입교식 개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 3월 3일,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2026학년도 봄학기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어학연수생과 한국어문화교육원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2026학년도 봄학기 한국어 정규 과정은 3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200시간 동안 진행되며, 학생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한국어 과정 학사 문의 및 원서접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www.kore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교육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25 GLH 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2025년 3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해외사업 정책 및 실행능력 확보를 위한 '2025 GLH 과정'을 진행하였다. 8명의 연수생은 8개월간 총 398시간에 걸쳐 전략어(스페인어, 베트남어), 비즈니스 영어, 지역학 특강을 학습하였으며, 스페인과 베트남 총 2회의 해외 필드트립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였다. 잠재 신사업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최종 보고서는 향후 공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높은 교육만족도와 교육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원은 현재 5년차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그룹 2026 지역전문가 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2025년 12월 8일부터 10주간 '삼성그룹 2026 지역전문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본 과정은 베트남어, 힌디어, 헝가리어 등 총 13개 어종, 66명을 대상으로 10주간 본원에서 합숙교육을 마친 후 전 세계 각지로 파견되어 삼성그룹의 발전을 이끌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어 정규과정/통번역과정/단기과정

한국어문화교육원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스페인, 독일, 캐나다, 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연수생들은 타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한국외대 학부생과 함께하는 멘토링 및 튜터링 프로그램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연 4회, 10주 동안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 정규과정, 숙련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모국어와 한국어의 통번역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4주 동안 한국어 통합 교육과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단기과정이 있다.

구분	학기	교육기간	접수마감(국가별상이)
정규/통번역과정	봄	2026. 03. 03. ~ 2026. 05. 14.	고사국가 : 2026. 01. 16. 비고사국가 : 2026. 01. 30.
	여름	2026. 06. 04. ~ 2026. 08. 12.	고사국가 : 2026. 04. 17. 비고사국가 : 2026. 05. 01.
	가을	2026. 09. 01. ~ 2026. 11. 13.	고사국가 : 2026. 07. 17. 비고사국가 : 2026. 07. 31.
	겨울	2026. 12. 01. ~ 2027. 02. 12.	고사국가 : 2026. 10. 16. 비고사국가 : 2026. 10. 30.
단기과정	봄	2026. 03. 05. ~ 2026. 03. 24.	2025. 12. 08. ~ 2026. 01. 30.
	여름	2026. 08. 06. ~ 2026. 08. 26.	2026. 05. 04. ~ 2026. 06. 19.

• 문의 02-2173-2262 • 홈페이지 <http://www.korean.ac.kr>

• 이메일 korean3@hufs.ac.kr

맞춤형 한국어 특별과정 운영

다양한 기관의 개별 수요에 맞춘 특별 한국어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특별 과정은 기관 요청에 따라 세분화된 교과과정으로 구성되며 위탁 연수생의 수준에 따라 정규과정 또는 통번역 과정과 교차 수강이 가능하다. 실용적 의사소통 위주의 교육과정과 맞춤형 학업 및 생활 지원으로 연수생들의 한국어 성취도 및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본원은 기존 교육과정을 여러 차례 재위탁받는 동시에 다양한 국가 및 기관으로부터 신규 과정을 유치하고 있다. 맞춤형 특별 한국어 교육 위탁에 대한 문의는 수시 접수 중이다.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 × HIFS ALP 과정 운영

영재교육원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주간 HIFS 글로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ALP(Advanced Language Program) 과정'을 운영하였다. 초등 2~3학년 총 24명이 참가한 본 과정은 학생들이 직접 언어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탐구와 발표 활동을 수행하는 Task-Based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보조교사 멘토링과 자율학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자기 주도학습 역량 또한 강화하였다. 수행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2주간의 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원은 학생들의 성장을 격려했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영재교육원 교육 인프라를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형태의 교육과정을 적극 설계 및 운영할 예정이다.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하여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역은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번역은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문의 02-2173-2566/2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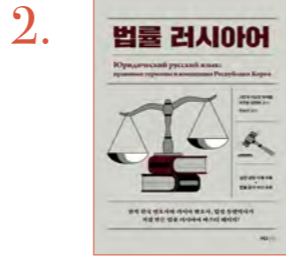
• 홈페이지 <http://hufscit.com>

새로 나온 책



1. 병원에서 통하는 러시아어 의료회화 개정판
한국을 찾는 러시아어권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통하는 러시아어 의료회화 개정판」은 바로 이 언어의 틈을 메우기 위해 탄생했다. 이 책은 병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상황 11가지를 엄선하여 진료 예약부터 수납, 진료실 회화, 응급실 대화, 약국 응대까지 실제 대화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교영, 김나제스다 / 328면 / 152*223 / 23,000원



2. 법률 러시아어
「법률 러시아어」는 단순한 러시아어 용어 암기나 문장 번역이 아닌, 구체적인 법률 상황에 맞게 법률 러시아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을 포함한 유라시아권 외국인들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생활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출입국 이민법, 민사법, 형사법의 세 분야로 나누어 총 12개의 테마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사례와 러시아어 어휘와 표현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민석, 이승진, 박혜림, 이주한, 김정래
136면 / 176*248 / 2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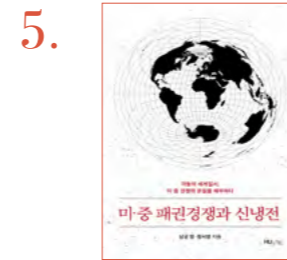
3. 통구스어와 한국어
「통구스어와 한국어」는 통구스어(에벤키어·에벤어)와 한국어의 비교를 제시하고, 한국어 계통 연구에 도움이 될 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서이다. 이 책은 국어학·역사언어학·비교언어학·알타이어학 분야에서 한국어 계통 연구의 쟁점을 정리하고 싶은 독자, 한국어와 북방 언어의 관계를 언어학적 근거 위에서 점검하고 싶은 연구자·대학원생에게 의미미한 논점과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책이다.

강덕수, 박기선 / 342면 / 152*223 / 25,000원



4. 스페인어, 한걸음 더 가볍게
「스페인어, 한 걸음 더 가볍게」는 언어 학습의 의미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교재이다. 이 교재는 스페인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용적인 표현과 단계별 연습문제를 통해 문법의 기본기를 다지고 단어를 연결해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더불어 배움의 길을 시작하는 학습자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더해 주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적 소통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돕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나송주, 김광희 / 230면 / 188*257 / 18,000원



5.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은 오늘날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로 자리한 미·중 패권경쟁을 이론적 틀과 실증적 사례를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이 책은 근현대 한반도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분단과 냉전 등 강대국 정치의 교차점에서 운명이 결정됐다는 역사적 맥락을 환기하며, 오늘날에도 한반도가 미·중 전략 경쟁이 직·간접적으로 수렴되는 공간임을 설명한다.

남궁영, 장시영 / 480면 / 152*225 / 29,000원



6. 천자문 톨아보기
1,5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읽힌 한자 교재는 천자문이다. 「천자문 톨아보기」는 이 고전 텍스트를 단순한 암송용 교재가 아니라 의미와 문맥을 갖춘 고전 문장집으로 다시 읽도록 안내하는 해설서이다. 본서는 1,000자의 음과 뜻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방식을 넘어, 문장 단위에서 각 글자의 기능과 의미를 분석한다.

김종호, 황후남, 한수진, 김다래, 백예진
428면 / 188*257 / 28,000원

F U

DONATION & ALUMNI



F S

DONATION NEWS

기부 서명식



안홍진 동문,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안홍진 전 삼성, 효성 임원(국제통상 75)이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3월 24일(화), 서울캠퍼스를 찾은 안홍진 동문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기부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서명식에는 강기훈 총장을 비롯해 김민정 대외부총장, 이유나 법인사무처장, 김강석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안 동문은 삼성전자 홍보실 상무와 효성그룹 홍보실 전무를 거쳐, 오피니언타임스 대표이사와 The PR Times 대표이사를 역임한 홍보·미디어 분야 전문가다. 현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서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7년과 2004년 학교발전기금 기부를 시작으로, 2015년 도서관 건립기금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모교를 지원해왔다.

DONATION NEWS

장학금 수여식



재직동문교수회

우리 대학 재직동문교수회(회장 한원택)는 지난 12월 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아이리스룸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직동문교수회 정기총회를 겸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총 4명의 학부모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각 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2025학년도 2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 박진성(영어통번역 22) ▲ 이에찬(융합인재 25) ▲ 정승엽(글로벌스포츠산업 21) ▲ 지승민(국제통상 24)이다. 이번 장학증서 전달식을 통해 재직동문교수회는 후학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이사장 이성희(정치외교 64), 이하 재단)은 2월 25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제16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제16기 신규 장학생 4명을 포함해 이번 학기 총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이사장을 비롯해 이준섭 현마산업 대표이사, 오주원 사무국장 등 재단 관계자와 강기훈 총장, 김민정 대외부총장, 박중찬 산학연계부총장, 최철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김강석 대외협력처장, 신근혜 학생·인재개발처장(서울), 장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쳤다.

DONATION NEWS

강의실 헌정식



이영우
(주)한길통상 회장

1월 26일, 서울캠퍼스 인문관 509호에서 '이영우 강의실' 헌정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견진만 전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모교와 학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이영우 회장(마인어 68)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영우 회장은 우리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를 졸업한 뒤 통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 한길통상을 성장시켜 왔다. 아울러 외대 동문산악회 회장과 국제무역인클럽(ITC) 회장을 역임하며 동문 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했으며, 학교발전기금과 '한길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문원
MIK상사 대표

1월 28일, 서울캠퍼스 인문관 504호에서 '이문원 강의실' 헌정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견진만 전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모교와 학과를 향한 이문원 회장(마인어 67)의 오랜 나눔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문원 회장은 우리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를 졸업한 뒤 ROTC 장교로 임관해 국가에 봉사했으며, 이후 언어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통상 분야에 진출해 MIK상사를 설립·경영하며 기업을 성장시켜 왔다. 아울러 마인어과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을 꾸준히 기탁하며 학과 후배들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DONATION NEWS

강의실 헌정식



김승영
(주)영보월드와이드 대표

1월 29일,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인문관 505호에서 '김승영 강의실' 헌정식이 개최됐다. 견진만 전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랜 기간 학과와 학교 발전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김승영 대표(네덜란드어 86)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승영 대표는 우리 대학 네덜란드어과를 졸업한 뒤 미성상사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 2003년 영보월드와이드를 설립해 기업을 성장시켰다. 기술력과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섬유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기부해 왔으며, ITC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 등 동문 사회의 결속과 학교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기여해 왔다.

ALUMNI NEWS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
국민훈장 모란장 전수식 개최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이덕선회의실에서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정치외교 64)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견진만 전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25 국민교육발전 유공' 대상자로 선정된 이성희 이사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수식에는 이성희 이사장을 비롯해 이준섭 현마산업 대표와 손자 이진이 참석했으며, 학교 측에서는 박정운 전 총장을 비롯해 김민정 대외부총장, 견진만 전 대외협력처장, 이지연 전 학생·인재개발처장, 이재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이 함께했다. 이성희 이사장은 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성과를 교육과 인재 양성에 환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대통령 추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ALUMNI NEWS

동문 출간



김정훈 동문, 신한은행 브랜드홍보그룹 부행장 임명
김정훈(영어 88) 동문이 2025년 12월 신한은행 브랜드홍보그룹 부행장으로 임명됐다.



김준태 동문, 신한투자증권 부사장 임명
김준태(국제통상 90) 동문이 2025년 12월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김진우 동문, 하나금융지주 WM본부장 부사장 임명
김진우(일본어 87) 동문이 2025년 12월 하나금융지주 WM본부장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박성혁 동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명
박성혁(신문방송 87) 동문이 2025년 12월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유철근 동문, 기술보증기금 감사 임명
유철근(경영 83) 동문이 2026년 1월 기술보증기금 감사로 임명됐다.

남궁영(정치외교 76)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 (휴인)

고민석(법학(석) 13)



법률 러시아어 (휴인)

이재원(독일어교육 80)



권력은 언어를 타고 흐른다 (한국문화사)

장기민(경영·금융(석) 24)



도시의 MBTI (미문사)



천용민(프랑스어교육 04)

비전공 초보자들도 의외로 할 만한 구글 스프레드시트 &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 (아이코스)

동문 번역



이예지(아랍어통번역 06)
아랍어 문법의 문화유산 (히크마)

Donation List

DONATION LIST

2025. 12. 01. ~ 2026. 2. 28.

한국의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강동이	12학년	300,000
강동희	08학년	60,000
강명남	93학년	30,000
김미리	03학년	30,000
고경숙	96학년	30,000
고민석	13학년	90,000
고영률	86학년	60,000
고태수	07학년	30,000
고태진	93학년	196,500
고혜섭	11학년	90,000
고혜수	16학년	30,000
공진성	93학년	150,000
곽새라	97학년	240,000
곽순래	83학년	90,000
곽태석	77학년	30,000
구민구	02학년	30,000
구자철	73학년	10,830,000
권성욱	79학년	30,000
권영아	91학년	30,000
권준호	93학년	90,000
김경희	91학년	450,000
김대윤	99학년	30,000
김대호	91학년	60,000
김도현	13학년	30,000
김도현	18학년	30,000
김동일	10학년	150,000
김동환	85학년	2,000,000
김미수	14학년	30,000
김민정	93학년	60,000
김민정	99학년	30,000
김민정	19학년	20,000
김민주	16학년	20,000
김범수	92학년	30,000
김봉철	95학년	1,338,165
김상범	82학년	105,000
김상원	86학년	30,000
김석중	89학년	60,000
김선주	74학년	60,000
김승수	87학년	90,000
김승영	86학년	1,500,000
김연수	17학년	45,000
김용빈	95학년	30,000
김용정	95학년	187,500
김용현	89학년	60,000
김원범	03학년	30,000
김유정	03학년	30,000
김유현	10학년	90,000
김운정	93학년	30,000
김자영	11학년	90,000
김정기	80학년	43,000,000
김정진	10학년	500,000
김종윤	90학년	30,000
김종호	89학년	10,696,124
김주영	20학년	60,000
김중명	93학년	30,000
김지숙	15학년	20,000
김지은	04학년	30,000
김지현	04학년	30,000
김진아	83학년	90,000
김찬환	84학년	60,000
김홍식	83학년	832,000
김태우	17학년	30,000
김현솔	14학년	100,000
김현수	16학년	30,000
김현신	99학년	30,000
김형래	87학년	90,000

성명	구분	금액(원)
김혜진	12학년	180,000
김희재	96학년	30,000
나도연	83학년	20,000
나영규	99학년	60,000
나은하	95학년	30,000
나은애	08학년	30,000
남한솔	16학년	30,000
노건업	99학년	500,000
노일환	09학년	510,000
노지영	91학년	30,000
류재욱	95학년	30,000
문관식	08학년	10,030,000
문안선	04학년	100,000
문종혁	19학년	30,000
문현성	98학년	30,000
박건우	98학년	300,000
박미정	00학년	60,000
박병식	67학년	100,000,000
박상준	93학년	30,000
박선종	81학년	30,000
박성건	97학년	600,000
박성준	89학년	1,000,000
박성호	96학년	30,000
박순원	00학년	60,000
박식원	91학년	90,000
박영복	83학년	300,000
박용운	19학년	20,000
박용현	95학년	60,000
박재홍	14학년	30,000
박정운	79학년	7,086,000
박종관	86학년	3,000,000
박종성	14학년	30,000
박지영	99학년	30,000
박진경	91학년	150,000
박찬범	85학년	400,000
박찬희	22학년	100,000
박치완	81학년	150,000
박환솔	21학년	900,000
박홍수	81학년	15,771,029
방교영	86학년	360,000
배동현	03학년	300,000,000
배석주	77학년	40,000
배은경	02학년	30,000
백승연	12학년	30,000
백인구	00학년	30,000
백인수	88학년	300,000
부중환	71학년	30,000
사기원	80학년	30,000
서유경	92학년	30,000
서정규	82학년	2,000,000
손세준	05학년	30,000
송대현	86학년	60,000
송민형	11학년	360,000
송연성	81학년	60,000
송원영	14학년	50,000
송준서	86학년	30,000
송철준	74학년	30,000
송차민	93학년	20,000
송현우	15학년	20,000
신근혜	97학년	595,074
신민하	97학년	60,000
신아람	11학년	10,000
신연재	81학년	30,000
신윤경	08학년	30,000
신윤철	04학년	30,000
신안선	11학년	9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신정아	89학년	750,000
신정현	02학년	40,000
심찬	03학년	60,000
안상범	98학년	60,000
안우혁	19학년	30,000
안준상	92학년	30,000
양병욱	14학년	30,000
양연우	97학년	40,000
양재완	94학년	30,000
엄홍길	02학년	30,000
여민기	95학년	30,000
염철	88학년	100,000
오성진	04학년	30,000
오원근	82학년	3,150,000
오종진	93학년	450,000
온대원	80학년	300,000
우재만	71학년	60,000
유달승	84학년	15,771,029
유민경	13학년	100,000
유시영	84학년	30,000
유영미	82학년	90,000
유은찬	20학년	30,000
유재형	96학년	30,000
유진규	11학년	30,000
윤선수	14학년	30,000
윤성우	86학년	1,673,100
윤성희	89학년	4,000,000
윤승영	97학년	390,000
윤은경	84학년	30,000
윤현숙	12학년	100,000
이몽안	83학년	25,000
이동원	18학년	40,000
이동철	87학년	60,000
이매리	90학년	5,000
이문원	67학년	50,000,000
이미현	17학년	30,000
이민형	03학년	1,000,000
이상광	67학년	300,000
이상환	81학년	15,771,029
이석주	79학년	8,000,000
이상배	98학년	30,000
이성주	77학년	60,000
이수연	06학년	30,000
이승용	81학년	300,000
이승원	00학년	30,000
이승조	78학년	30,000
이영도	81학년	30,000
이영숙	80학년	14,699,442
이예지	16학년	30,000
이옥성	76학년	60,000
이용출	82학년	30,000
이우섭	84학년	60,000
이우정	99학년	30,000
이은구	18학년	30,000
이은순	73학년	30,000
이장일	88학년	30,000
이재호	74학년	20,000
이정보	15학년	30,000
이종섭	80학년	30,000
이주연	97학년	60,000
이주영	10학년	1,000,000
이준희	86학년	150,000
이지연	95학년	30,000
이지은	98학년	90,000
이진경	09학년	5,000
이창훈	87학년	15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이춘호	87학년	150,000
이택규	17학년	30,000
이하나	02학년	40,000
이학수	12학년	1,000,000
이항	89학년	834,000
이현석	11학년	390,000
이현준	14학년	25,000
이호경	91학년	30,000
이화광	96학년	30,000
이희섭	86학년	50,000
이희성	89학년	30,000
임근동	82학년	30,000
임대근	89학년	15,771,029
임소라	95학년	937,500
임재복	82학년	30,000
장상환	87학년	10,000
장선호	18학년	30,000
장일범	87학년	30,000
장재혁	14학년	90,000
전별	11학년	90,000
전성철	76학년	150,000
장구승	08학년	1,000,000
정민희	10학년	150,000
정베드로	16학년	60,000
정순자	91학년	30,000
정승화	99학년	30,000
정언용	91학년	30,000
정영오(Luke Jung)	99학년	7,242,872
정우호	95학년	150,000
정재민	81학년	210,000
정지훈	98학년	30,000
정철자	84학년	60,000
정현아	06학년	999,999
정혜연	92학년	60,000
정휘영	98학년	30,000
재성훈	94학년	30,000
이형수	97학년	30,000
조규태	72학년	150,000
조동식	69학년	30,000
조민기	91학년	40,000
조용배	85학년	30,000
조원균	92학년	30,000
조정서	17학년	30,000
주다울	10학년	30,000
진한욱	16학년	150,000
차은수	01학년	30,000
차현경	15학년	60,000
채미혜	98학년	30,000
천부기	91학년	30,000
최근호	87학년	30,000
최바다	18학년	100,000
최병천	81학년	30,000
최상규	90학년	30,000
최수연	18학년	30,000
최송필	87학년	7,915,514
최영규	84학년	30,000
최요섭	95학년	90,000
최은정	92학년	300,000
최인숙	92학년	200,000
최정호	06학년	1,500,000
최태원	90학년	90,000
최푸른하늘	17학년	30,000
추기영	04학년	30,000
태현주	18학년	30,000
하상원	74학년	150,000
하정수	81학년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한계정	67학년	5,000,000
한나린	18학년	30,000
한원덕	83학년	60,000
한익섭	05학년	90,000
함승연	18학년	30,000
함영준	81학년	30,000
하성수	98학년	50,000
하완	78학년	90,000
하욱	94학년	30,000
현소영	14학년	30,000
홍성민	90학년	300,000
홍승이	98학년	4,000
홍순혁	86학년	450,000
홍영표	81학년	150,000
홍의표	00학년	30,000
홍종영	87학년	30,000
홍진표	74학년	10,000,000
홍현주	82학년	30,000
황성우	85학년	30,000
황승이	05학년	30,000
황용태	70학년	70,921,616
황인자	74학년	30,000
황희재	16학년	30,000
강기훈	외대교수	15,771,029
권영우	외대교수	100,000
김민정	외대교수	10,000,000
명희준	외대교수	150,000
박종찬	외대교수	150,000
박홍선	외대교수	15,771,029
안수현	외대교수	2,000,000
여호규	외대교수	105,000
윤기훈	외대교수	150,000
이강웅	외대교수	1,250,001
이경율	외대교수	150,000
이근영	외대교수	105,000
이승래	외대교수	60,000
이은희	외대교수	60,000
이창현	외대교수	10,000,000
이태욱	외대교수	600,000
장보은	외대교수	300,000
장지호	외대교수	150,000
최은진	외대교수	105,000
이종길	명예교수	2,000,000
장실	명예교수	30,000
최재철	명예교수	30,000
유정화	퇴직교원	90,000
김현숙	외대직원	150,000
김해정	외대직원	30,000
신선호	외대직원	30,000
단창균	학부모	150,000
유실자	학부모	60,000
Julie Lee & David Hwang	기타(개인)	3,750,000
김병진	기타(개인)	2,000,000
김명래	기타(개인)	5,000,000
김정욱	기타(개인)	1,000,000,000
나우라티오펜니 (형길환)	기타(개인)	150,000
유기상	기타(개인)	1,500,000
차상석	기타(개인)	10,000,000
최광희	기타(개인)	40,000
독일어교육과 총동문회	동문단체	3,000,000
삼일회계법인 외대동문파트너 일동	동문단체	1,000,000
상경대학 경제학부 82학번 동기회	동문단체	2,000,000
스페인어과 동문회	동문단체	15,000,000

DONATION LIST

2025. 12. 01. ~ 2026. 2. 28.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영어대학 동문회	동문단체	17,300,000
외영78동기회	동문단체	3,000,000
재직동문교수회	동문단체	2,440,000
한국외대 ROTC 총동문회	동문단체	30,200,000
한국외대 민주동문회	동문단체	6,000,000
한국외대 사학과 동문회	동문단체	500,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2,955,000
글로벌스포츠포스산업학부	교내단체	1,120,000
글로벌캠퍼스 신우회	교내단체	2,000,000
외대비전교회	교내단체	1,000,000
외대재직직원장학회(씨앗)	교내단체	2,250,000
광주회관	외대사립후원업소	300,000
(재)삼일문화재단	기타(단체)	4,955,000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기타(단체)	4,531,000
(재)협성문화재단	기타(단체)	4,610,000
(재)홍익재단	기타(단체)	18,000,000
남정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0
네덜란드어 연합(Nederlandse Taalunie)	기타(단체)	9,918,174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양교회	기타	

기부 혜택

외대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기부자 예우

구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념품 제공	○	○	○	○	○	○	○
학교 발간 홍보물 제공	○	○	○	○	○	○	○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	○	○	○	○	○	○
평생 차량출입증 제공		○	○	○	○	○	○
외국어 연수 평가원 수강료 본인 및 직계가족 30% 할인		○	○	○	○	○	○
감사패 증정			○	○	○	○	○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	○	○	○
대전수련원 이용시 교직원에 준한 예우				○	○	○	○
홀 명칭 동판 부착					○	○	○
홍상 부조 부착							○

● 세제혜택

1.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① 기부금 기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자동 신고
 방법 ②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2.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 X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예금주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방법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3.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문의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이메일) hufs5@hufs.ac.kr

QS 세계대학평가 평판도 설문위원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社(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는 전 세계 대학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여 매년 6월 세계대학평가 결과로 1,500여 개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는 약 40여 개 대학이 본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과 우수 교원 확보 및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는 대학 평판도, 교육여건, 연구성과, 국제화 지표가 있으며, 이 중 평판도 설문 결과를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하여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학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국내·외 대학을, 산업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업무 분야에서 채용을 선호하는 국내·외 대학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합니다.

현재 2027년 평가에 참여해 주실 설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 위원으로 등록하실 경우,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로 2026년 3월 ~ 2027년 2월 중에 QS에서 직접 대학 평판도 설문조사 링크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의 설문 참여 하나하나가 우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설문위원으로 등록하시어 소중한 의견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계(국내외 대학교 소속) 및 산업계(직장인 등) 모두 참여 가능

◆ 설문위원 상시 등록 가능

◆ 문의 : 기획조정처 평가감사팀(02-2173-2027 / eat@hufs.ac.kr)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



한국외국어대학교



Global HUFS 130